

분홍 해치의 건투를 빌며

에스프레소



채민기
문화부 차장

이달 1일 서울패션위크 객석 만발치에서 본 오세훈 서울시장에 회색 재킷 안에 분홍 터틀넥을 입고 있었다. 패션 쇼장이 아니라 색다른 게입었다 했다며 질 뒤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서 또 다른 의미를 깨달았다. 자료에 따르면 그날 행사장이었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15년 만에 새로 디자인한 서울시 캐릭터 '해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높이 8미터짜리 분홍색 해치 인형을 소개하는 오 시장의 영상을 보니 의상을 고른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영상의 인형을 본 기억은 나지 않았다. 아마 봤어도 해치인 줄 몰랐을 것이다. 색깔뿐 아니라 생김새가 예전의 노란색 해치와 완전히 달랐다. 해치 고유의 날개와 비늘은 유지했다는데, 해치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설명을 받고 처음 알았다.

'하이 서울' (이명박)에서 '아이 서울 유' (박원순)로, 다시 '서울 마이 서울' (오세훈)로 시장의 당적(黨籍) 따라 달라진 표어와 달리 해치는 2009년 처음 발표했던 오세훈 서울시에서 스스로 바뀌어왔다. 인지도가 낮아져서 '제도약과 혁신'이 필요했다고 한다. 새 해치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만약

노란 해치에 이어 분홍 해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런 빨간 해치로 또 혁신할 것인지 궁금하다.

해치를 새로 선보이면서 이른바 '젊은 느낌'을 주려고 애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이번에 해치의 친구들인 사신(四神) 캐릭터를 함께 만들었는데 '시니컬한 페르소나'인 주작(朱雀)의 이름은 '빨친 주작',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아는 청룡(靑龍)은 '댕댕 청룡'이라고 한다. 빨친다(화나다), 댕댕이(멍멍이) 같은 유행어를 쓰고 그것을 마블 유니버스의 배경을 설명할 때처럼 '세

15년 된 서울시 캐릭터 해치 인지도 낮다며 디자인 싹 바뀌어 '힙한 트렌드'만 모았다는데 성공은 안 아닌 대중이 이끄는 것

계관'이라 부르는 것이 보도자료의 표현대로 "MZ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에 걸고루 사랑받을 수 있는 힙(hip)한 트렌드"인 모양이었다.

디자인으로 도시 브랜드를 만든 가장 성공적 사례는 아마도 밀턴 글레이저(1929~2020)의 'I♥NY' (1977)일 것이다. 하트(♥)는 그때까지 사랑(love)의 기호로 쓰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디자이너의 직관을 바로 이해했다. 글레이저가 지식재산권을 뉴욕주(州)에 기탁한 이 로고는 '엠포이어스 테이트빌딩이나 자유의 여신상 못지않은 상징' (뉴욕타임스)이 됐다. 뉴욕이

9·11 테러 공격을 받아 글레이저는 로고 밑에 'MORE THAN EVER(그 어느 때보다도)'를 추가해 포스터를 만들었다. 뉴욕데일리뉴스는 이를 1면에 가득 차게 실어 배포했다. 'I♥NY'이 애도와 희망의 아이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도시에서 아류작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한다. 좋은 디자인은 긴 말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관(官)에서 발주했다라도 디자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향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점. 'I♥NY'은 뉴욕주가 관광 홍보 캠페인에 몇 달 쓰려고 글레이저에게 의뢰해 탄생했지만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 디자이너의 탁월한 창의, 사람들의 진심 어린 애정, 범접 도시에서 세계의 수도로 거듭난 뉴욕의 매력은 오랜 화학작용을 일으킨 결과다. 뉴욕주는 글레이저가 9·11 이전을 만들자 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려고 했다. 글레이저는 생전 인터뷰에서 이 일을 언급하며 "관료 조직을 상대하다 보면 그들이 자기 자신 말고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다.

'I♥NY' 못지않은 서울의 상징을 보고 싶다. 해치가 그 주인공이 될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충분한 매력이고 상징 디자인에 그만한 설득력이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즐길 것이라는 사실이다. 힙한 세계관을 일일이 가려주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281]

이지러지는 동그라미



중용(中庸)이라는 덕목으로 자리를 틀었다. 때로는 원만(圓滿), 원융(圓融)이라고도 쓴다.

그래서 삶의 고달픈 길에서도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상황의 전개를 집착하게 지켜보라는 권유의 새옹지마(塞翁之馬) 식 인생관이 발달했다. 나쁜 일과 좋은 일은 서로 붙어 돌아간다는 화복상(禍福相依)라는 성어도 그렇다.

기쁨과 슬픔의 희비(喜悲), 불행과 행복의 화복(禍福)이 양단으로 나뉘지 않고 함께 붙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동그라미 인생관이다. 달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이지러진 달보다는 동그런 보름달을 더 높이 치는 이유다.

요즘도 중국인들은 음력설 등 명절이 오면 먼 객지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기꺼이 몸을 들인다. 제야무리 험난한 여정이라도 감수한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먹는 밥(團圓飯), 그렇게 서로 어울리는 정경(團圓夢)이 그리워진다.

올해 폭설과 강추위가 겹친 귀향길도 북적이다. 그러나 예전만 같지 못하다. 경제적 사정이 크게 어려워져 고향 가는 길에 나서길 포기하는 사람이 많단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 오붓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중국인의 소박한 동그라미 꿈도 이렇게 이지러진다.

종로문화재단 대표

社說

간첩단 피고인들의 5번째 '판사 기피' 즉각 기각, 처음부터 그랬어야

간첩단 '총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5번째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판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지 않고 즉각 기각했다. 1심 선고 날짜도 2월 법관 인사 가나 직전으로 잡았다. 판결을 다른 재판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결성해 뒤 지역 인사를 포섭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로서도 이런 중요 재판 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동안 위헌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재판 지연책을 동원해왔다. 피고인 4명 중 3명이 무죄 3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나머지 1명이 따로 기피 신청을 내는 '쪼개기 신청' 수법까지 썼다.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재항고를 반복했다. 그사이 재판은 중단됐고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 등으로 다 석방됐다. 도저히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헌법재판회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 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사건 피고

인들이 낸 신청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부가 판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고, 그 판단까지 늦어지면서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된 것이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처음부터 신청을 바로 기각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간첩단 사건도 마찬가지다. 피고인들은 법관 기피 신청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이미 다 풀려났고, 1심 재판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 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 판사들이 각종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재판도 형식적으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얼마 전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25분 만에 판사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퇴정하는 일도 있었다.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판사는 그냥 지켜봤다. 조금만 정치적 부담이 있는 재판이면 판사들이 재판하는 척 시늬만 내다가 인사 때 '도망'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을 막고 사법 정의를 세우려면 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2심도 징역형 조국, 반성 사과 아니라 출마 선언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형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판결 후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제 힘을 보태는 것으로 끝내는 사과를 하려 한다"고 했다.

조씨는 사과를 않은 대신 입장문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씨가 미사여구로 자신의 출마를 포장하려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법사위에 들어가면 진행 중인 자신과 가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조씨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하고, 아들이 다니던 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해줬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 혐의가 모두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씨는 학자 시절 SNS를 통해 온갖 좋은 말을 하며 저명인사가 됐지만, 법무장관 검증 과정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내로남불이 드러나 사람들이 혀를 찼다. 조씨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초래했다. 이것만으로도 조씨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징역형을 받은 날 도리어 출마 선언을 했다.

지금 민주당 인사들 사이엔 비리를 감출 수 없게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만들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은하 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출마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이 대표가 위정정당을 만들어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방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뿐이다.

대선 낙선 측이 "대선 패배 책임지라" 남 탓 한다니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정권을 넘겨준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대선 패배 책임론'이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현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들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운을 뗐던 이어,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7일 라디오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 아니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추미애 전 법무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책임을 져야 할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총선 출마 준비 대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7일 한 언론은 친명 지도부가 임종석 출마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당내 흐름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별칭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내에서도 갈등과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지난 대선 때 당 후보로 나서 패배한 사람들이 대선

과정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적반하장(積반하장)과 본말전도의 느낌을 준다. 대선 당시 상대편이었던 국민의힘 진영은 여러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후보와 당대표 간의 분열까지 겹치면서 자멸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대장동 및 박원순 개발 특혜, 경기도 법원 카드 유용, 수석억 변호사비 대납, 대법관 재판 거러 등 선거 기간 줄줄이 쏟아져 나온 이재명 후보의 의혹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대선에 낙선한 이 대표의 선거가 끝난 지 몇 달도 안 돼 국회의원이 되고, 곧 이어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가 됐다. 낙선 책임을 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 후엔 쉬지 않고 방탄 국회의원을 앞세워 불법 폭주를 거듭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대선에 관여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선 패배 책임지라"고 하니 사리에 맞지 않는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식 밖 행태로 폄하해 도리어 정치적으로 키워 준 추미애 전 장관이 남 탓 손가락질에 앞장 서고 있는 것은 희한한 일이다.



삼성 사법위기

7년째 족쇄 이재용에 최소 6년 더? ... 검찰, 항소 포기하라!

뉴데일리
newdaily.co.kr

미국은 1심 무죄면, 그걸로 끝
최소 13년 징역, 이게 문명적 사법 절차?
선두 대안엔 더 처지고, 후발 마일에도 바짝 쫓기는 신세
단군 이래 한국 최고 기업 배 가르려는가? 뭘 위해?

족쇄 13년 이상 (7년 + 3년 + 3년~)

삼성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인가?

만약 항소한다면 재판에 3년이 걸린다. 또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또 상고한다면, 그 재판도 또 3년 걸린다. 이미 지난 7년간 발목에 족쇄를 채운데 이어, 또 이렇게 6년을 사법 리스크에 몰아넣는다면, 삼성의 세계적인 사업은 반사(澌死)할 것이다.

검찰은 그래서 [문지 마 항소]를 포기하라!

보도(조선일보 2023/02/07)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7년 동안 사법 위기에 묶여 있는 동안, 글로벌 반도체 경쟁자들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키웠다"라고.

대만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단연 선두에 섰다. 미국 인텔과 일본 라피더스는 삼성 뒤에 바짝 따라붙었다. 중국 SMIC도 설비 투자액을 대폭 늘렸다. [반도체 굴기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용단 내려라

이런데도 검찰은 또 상투적으로 항소할 것인가?

그렇다고 범을 무시하지는 말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1심 선고는 무죄였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물론 다를 수 있다.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업(業)'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47개 혐의에서 다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동 뺑'으로 항소했다.

미국에선 '1심 무죄'를 받으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다. 연방헌법에 규정된 '이중 위험 금지' 조항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때 같은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월급 받으며 국가 비용으로 소송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승소 가능성 없으면, 기소된 사람이 2·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판단해 달라"라고.

삼성 죽이기 배후의 검은 그림자

에당초 삼성 이재용 회장이 형사소추에 걸려든 것,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었다. 운동권은 삼성을 극도로 증오한다. 삼성이 한국 경제발전의 선두에 섰기에?

이런 인식은 극단적으로는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 삼성을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란 수준까지 솟구쳤다.

이런 적대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재용 구속'으로 간 부문을 결코 간파할 수 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삼성에 대한, 저★지속적이고★집요하고★연쇄적인 핍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잠시 욕 먹더라도 나라 위해 결단해야

사람과 기업을 죽이는 법규야, 얼마든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

법 좋아하네! 정치적 음모와 선동으로 [천하의 공적(公績)] 만들고 그런 다음, 이 법조문-저 법조문 갖다 읊어대면, 그게 사회(仕) 아닌가?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상승적평행적공성적 항소]를 그만두라! 그러지 않고선 누가, 어떻게, 왜 한국 같은 [반(反) 기업 국가]에서 사업할 마음조차 들 것인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촬영으로 2024년 2월 8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73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